

‘V11’ 김기태는 이범호에게 ‘V12’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25일 롯데전 승리 기원 시구 제자 겸 후배 감독 진심 격려 “선수단·프론트·팬 아울러… 한국시리즈까지 좋은 결실”



타이거즈의 열한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궈낸 사령탑이 시구자로 광주에 돌아왔다.

이제는 야인으로 세월의 흐름이 제법 느껴지는 얼굴과 목소리였지만 제자들을 향한 덕장의 모습은 변함없었다.

김기태 전 KIA타이거즈 감독은 지난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5차전에 앞서 승리 기원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KIA 구단은 이날 한국시리즈 출정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승 사령탑인 김 전 감독의 기운을 받고자 이 같은 이벤트를 마련했다. 올 시즌 정규 시즌 우승을 이끈 이범호 감독의 롤 모델 중 한 명이 그의 스승인 김 전 감독이기도 하다.

김 전 감독은 이날 시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KIA타이거즈의 올해 정규 시즌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모든 팬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한국 시리즈에서도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김 전 감독은 KIA 사령탑을 맡고 있을 때부터 일찌감치 이 감독을 사령탑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감독이 지난 2월 타



김기태 전 KIA타이거즈 감독(오른쪽)이 지난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5차전에 앞서 승리 기원 시구를 진행한 뒤 마운드를 내려와 이범호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이거즈의 11대 사령탑에 오르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축하 문자를 보낸 이로도 알려졌다.

그는 “이범호 감독이 판단력이나 팀을 장악하는 힘, 선수들과 소통 등이 뛰어나다. 팀워크를 잘 갖췄다”며 “우승은 현장

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수단과 프런트, 팬들까지 모든 부분을 잘 아울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저보다도 한 수 위의 감독”이라고 치켜세웠다.

우승이라는 성과를 위해서는 고비를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다. 7년 전의 KIA가

KT와 마지막 수원 원정 3연전에서 2-20의 대패를 당고 극적인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것처럼 올해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섰다.

김 전 감독은 “2017년에는 정말 힘들었다. 수원에서 마지막 3연전 첫 경기를 대

패하고, 그걸 이겨냈을 때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도 부상이나 여러 어려운 여건들을 잘 넘어섰다. 한국시리즈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7년 전 한국시리즈에서 이 감독이 터트렸던 만루 홈런은 지금도 생생한 장면이다. 당시 주전 3루수로 활약했던 이 감독은 1차전에서 4차전까지 극심한 부진에 빠졌으나 5차전에서 만루 홈런을 터트리며 시리즈에 마침표를 찍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전 감독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만루 홈런 나오고 점수 차가 많이 나겠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어렵게 흘러갔다”며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서 한국시리즈 우승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끝났다. 기회가 많이 없는 만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제자들과 고향 팀 후배들을 향한 애뜻한 마음도 드러났다. 시구 전부터 이미 양 팀에서 제자들이 대기실을 찾아 인사를 나눴고, 시구를 위해 마운드에 오르자 양현종과 한준수는 진한 포옹으로 스승에 대한 각별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 전 감독은 “박찬호는 대담한 것은 있었는데 불안불안했다.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 너무 반갑고, 부상 없이 오래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며 “김도영은 처음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고 스타성도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활약할 수 있는 좋은 선수인 만큼 부상 없이 더 잘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규빈 기자**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태극마크 향해 쏘라

오늘부터 예천서 국대 1차 선발전 안산 등 광주·전남 공사 23명 도전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할 양궁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장정이 시작됐다.

대한양궁협회는 27-28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2025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개최한다.

1차 선발전은 국내대회 개인전 1-3위 입상자, 기준기록(남자 1334점, 여자 1358점)을 통과한 남자 102명, 여자 102명이 출전한다. 중학교 3학년 선수 가운데 전국대회 개인전 우승자도 출전 기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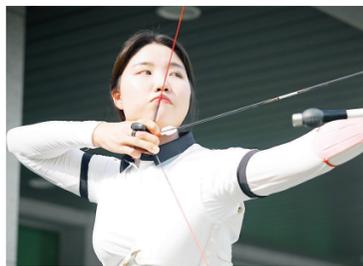
광주·전남에서는 남자 6명, 여자 17명이 태극마크를 향한 도전에 나선다.

현 국가대표 최미선(광주은행텐텐양궁단), 오예진(광주여대), 남수현·이은경(순천시청)은 태극마크 수성에 나선다.

2020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텐텐양궁단)과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남구청)은 태극마크 탈환과 함께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티켓에 도전장을 던졌다.

‘광주시청 4인방’ 김수린, 최민선, 이가영, 김재운은 광주 양궁 전통을 이어간다는 각오로 사대에 선다.

올해 광주시청 유니폼을 입은 전 국가대표 김수린은 지난 7일 끝난 올림픽폐기점 제4회 회장기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최상의 경기력으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태극마크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최동한 기자**



순천시청 남수현

여기에 김이안(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이수연(광주여대), 유시현(순천시청), 탁해운·서보은(순천대), 이동민·최민준(남구청), 이원주·진효성(조선대)도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사대에 선다.

광주·전남 고교공사 박주혁(광주체고), 이다영·남지현(광주체고), 조한이(순천여고)는 ‘스타 탄생’을 꿈꾼다.

2024 파리 올림픽 3관왕 김우진(청주시청), 임시현(한체대)과 남녀 각 3연패와 10연패의 주역인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 전훈영(인천시청)도 계급장을 떼고 원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함께 한다.

27-28일 치러지는 1차 선발전에서는 8차례 70m(36발) 기록경기(남·녀 180초 동시발사)를 통해 남녀 각각 64명을 선발한다.

2차 선발전은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청주김수녕양궁장에서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64명이 역배점 점수를 안고 토너먼트와 기록경기를 펼쳐 최종 남녀 각 20명을 가린다.

‘파이널A 좌절’ 광주FC, 강등 전쟁 우위 점할까

내일 김천과 원정서 맞대결 정규 라운드 마지막 두 경기 잔류 위해서 승점 확보 절실



파이널A 진출이 무산된 광주FC가 본격적인 강등 전쟁에 돌입한다. 정규 라운드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최대한의 승점을 확보해 잔류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28일 오후 7시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상무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3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김천에서 경기를 마치는 대로 김포로 향해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 타이이트한 일정이다.

K리그와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를 병행하는 험난한 일정 속에서 광주는 최근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22일 제주유나이티드와 맞대결에서 0-2로 일격을 당하며 파이널B 행이 확정됐다.

정규 라운드 두 경기와 파이널 라운드 다섯 경기까지 총 일곱 경기를 남겨놓은 광주는 잔류를 확정 짓기 위해 최소 9위를 확보해야 한다. 광주는 올 시즌 13승 1무 17패(승점 40)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승강 플레이오프권인 10위 전북 현대모터스와 11위 대구FC는 나란히 승점 34점을 적립해 두 경기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강등을 면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31라운드 홈경기에서 패배한 뒤 아쉬움 속에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하기 위해 처절한 승부가 이어지는 만큼 승점을 조금이라도 더 적립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호 감독 역시 잔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전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강등권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잔류하지 못한다면 ACLE를 과감히 버릴 수밖에 없다”며 “K리그2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구단이나 선수들 가치에도 좋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다.

광주는 김천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선수단은 다득점에 도전하는 동시에 무실점을 꾀하며 공수 양면에서 승점을 적립하기 위한 집중력을 높일 전망이다. 공격에서는 이견희의 복귀가 반갑다.

경고 누적으로 제주전 출장 정지를 받았던 이견희는 충분한 체력을 충전해 최고의 컨디션을 구축했다. 이견희와 호흡을 맞추는 최경록 역시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가브리엘 티그랑과 베카 미켈타제, 자시르 아사니로 이어지는 다국적 외인 트리오가 견재하다는 것 역시 긍정적 요소다. 가브리엘과 베카, 아사니는 제주전에서 침묵했지만 언제나 득점을 터트릴 수 있는 폭발력을 갖췄다.

수비에서는 허울의 복귀가 반갑다. 지난 1일 대전하나시티즌과 맞대결 전반 막바지 부상을 당해 필드를 빠져나왔던 허울은 빠른 회복으로 최근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번 경기 정상 출격을 준비 중이다. **한규빈 기자**